

‘만남의 장’ 변신 당산 숲…더이상 외롭지 않다

숲 속의 전남 <6>

신안 태천마을 당산 특화숲 (지도읍 이장협의회)

쓰레기 뒹굴고 방치됐던 마을 입구

주민 100여명 나무 심고 숲 꾸며

300년, 아니 500년은 더 됐을 마을수호신 뽕나무 6그루는 더이상 외롭지 않다. 주변 나무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오랜기간 홀로 서 있었지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그 주변을 숲으로 꾸몄다. 뽕나무를 중심으로 작은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여기저기 널려있던 쓰레기는 자연스레 사라져 ‘만남의 장’으로 거듭났다.

김현채(40)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공원녹지담당은 “주민들의 열의가 없었으면 못했을 일”이라며 “1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당산나무 인근의 조경 하나하나까지 관여했다”고 말했다.

1982년 12월 3일 보호수로 지정된 뽕나무들은 200여년 전 찰라나갈 위기도 있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나무가 좋다는 소문을 들은 몰사람들이 나무를 베러 섬으로 들어오다가 배가 전파되면서 무위에 그쳤다는 전설이 그것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태천마을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주민들은 당산나무 덕분에 알고 있다. 이 신성한 당산나무를 후대에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당산숲의 전체 디자인은 두 개의 작은 광장을 구불구불한 길로 연결해 닿을 수 있는 구조다. 마치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주변 나무를 둘러본 뒤 비로소



하늘에서 바라본 신안군 지도읍 태천마을 당산나무 특화숲. 당산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마을주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나무 앞에 설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은 당산나무 앞 광장에서 당제를 지낼 생각이다.

숲 주변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돼왔고 앞으로 그럴까 논·밭과 바다가 펼쳐져 있다.

■특화숲 정보

-주소 :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1175번지 외 1필지

-면적 : 2648㎡

-내역 : 뽕나무 50그루, 삼나무 등 100그루, 벤치

-장소 : 태천마을 당산나무 주변

-목적 : 당산나무 보호, 경관 조성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세형 이장

“당제 앞 제실 만들어
대대손손 물려줄 것”



김세형 이장(왼쪽)과 김현채 계장.

“주민 모두가 관심이 높아 어렵게 조성한만큼 잘 가꾸겠습니다.”

이장 김세형(70) 할아버지는 숲 설계부터 군청 관계자와 3차례 협의를 하고 나서야 공사를 허락했다. 대대손손 전해내려왔고, 앞으로도 수백년 이어질 당산나무 숲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 나무 덕분에 마을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나쁜 일들은 피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 같이 조성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죠.”

나무 종류도 오랜 논의 끝에 결정했다. 같은 뽕나무 50그루, 삼나무, 동백나무 100그루, 초화류 500그루로 한 것은 전체적인 조경과 미래세대까지 당산나무가 이어질 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난 뒤 25년만인 지난 1988년 다시 돌아온 그는 “당산나무 앞에 제실을 만들어 당제를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미래 ‘주춧돌’ 동함평산단 희망으로 우거진다

동함평산단 푸른숲 조성사업 (함평군번영회)

바위산 인근 배수지시설 산책 공간

벚나무 300그루·파고라 등 갖춰

동함평일반산업단지는 함평군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이다. 국·도비 27억원, 군비 158억원, 민간자본 550억원 등 모두 735억원을 투입해 73만5000㎡ 규모로 조성된 산단은 함평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직면한 함평이 동함평산단으로 인해 젊은층의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산단으로는 상당한 수준인 88%(2016년 6월말 현재)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속속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동함평산단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함평군 청장년층 200여 명으로 구성된 번영회가 그려한 기대와 희망을 모아 숲 조성에 나섰다. 이남오(45) 사무국장은 “지역의 미래 주춧돌인 산단을 아름답게 꾸미자는데 회원 모두가 찬성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무 식재 장소는 산단 중심 바위산에 설치된 배수지시설 주변으로 결정했다. 산단 직원들이 손쉽게 찾아 산책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찾아 풀베기, 쓰레기 줍기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동함평산업단지 내 돌산 위에 조성된 푸른숲. 산단 내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삭막한 산단에 푸른 생기를 더해줄 것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겼다.

“어서 산단이 공장지로 가득차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혔다.

■푸른숲 정보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65-7 일대

-면적 : 1910.6㎡

-내역 : 왕벚나무 300그루, 느티나무 300그루, 파고라, 등 의자, 식생매트 및 포장, 홍보 안내판

-장소 : 동함평산업단지 내

-목적 :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 경관 조성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군 청계면 용계천 숲 (청계면청년회)



과거 용계천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20여년 전만 해도 먹을 감는 아이들과 산책하는 주민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청계면 중심을 흐르는 이 강을 지켰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정비사업이 계속되면서 하천 폭이 좁아지고, 거주민도 줄어들면서 존재 가치는 희미해지고, 외로운 처지에 놓였다. 그나마 인근 목포대학교 덕분에 다른 면소재지보다는 쇠락의 기운은 덜하지만, 과거의 번성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50세 미만 44명으로 구성된 청계면청년회가 청년이 돌아오고, 그래서 생기가 도는 용계천을 기대하며 시작한 것이 하천숲 조성이다. 마침 전남도가 ‘숲 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 공모에 나서자 스스로 없이 참여했다.

이석준(46·사진) 회장은 “숲이 생기면서 낮에 오는 주민들이 더 자주 눈에 보인다”며 “천 주변에 작은 공원을 만들어보자는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계천에서 수영을 하고,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친구들과 청춘을 보냈다. 그 친구들이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외지인 유입도 거의 없어 청년회의 회원도 점차 줄고 있다. 50대가 돼 버린 7명을 제외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회장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벤치를 중심으로 조성된 용계천 하천숲.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서서히 면적을 넓혀나가고 형형색색의 꽃나무를 심어 아름답게 꾸밀 생각이다.

인 3남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용계천을 물려주고 싶다”며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뜻을 모아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부터 승달산 하루재에 철쭉동산을 조성하고 있는 청년회는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용계천 주변을 4계절 꽃피는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다.

■하천숲 정보

-주소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510번지

-면적 : 1400㎡

-내역 : 느티나무 27그루, 동백나무 18그루, 배롱나무 12그루, 홍단풍 6그루 등 70그루, 관목 2000본, 벤치 등

-장소 : 용계천 주변

-목적 : 하천 경관 조성 등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